

##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심의 총평

### ■ 1차 심의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의 상징성 있는 장소에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 자생력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 양성 목적으로 공모하였다. 다원예술, 무용, 시각예술, 연극, 전통예술,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사업으로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광주 등 총 17개 지역의 175개 단체가 지원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토론을 통해 17개 시,도 1개 이상의 총 40단체를 2차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업의 참신성, 차별성, 지역적 특성과 실행 주체의 역량, 문화가 있는 날 홍보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다.

제안 단체들의 대다수가 ‘문화가 있는 날 지역 거점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과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예산계획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대다수 단체들의 경우 지역 거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돋보였다. 추후 최종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수행 역량을 높였으면 한다.

## ■ 2차 심의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40단체들과의 인터뷰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시도의 19팀을 선정하였다. 사업의 참신성, 차별성, 지역적 특성과 실행 주체의 역량, 문화가 있는 날 홍보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 위원과 단체 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평가하였다.

심의에 있어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역 안배를 중점적으로 염두 해 두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단체가 없는 시, 도의 경우는 제안 단체의 사업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최종 선정 단체들 중 일부 단체는 사업 수행에 앞서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 및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심의위원 일동